



## 미국 LTC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김진억 수석담당역

■ A.M. Best<sup>1)</sup>에 의하면 미국의 장기간병(LTC)보험<sup>2)</sup>은 고령화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과거 잘못된 가정을 기초로 판매된 계약들이 다수 남아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인구의 약 70%가 어떤 유형이든 장기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4천 5백만 명에서 2030년 7천 3백만 명, 2050년 8천 3백 7십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3년 LTC보험 가입자는 거의 5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LTC보험을 처음 구매하는 계약자의 평균연령은 56세로, 약 10여 년 전에는 평균 구매자연령이 66~67세이었던 것에 비해 점점 구매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 2013년 평균 일인당 초년도 보험료는 2012년보다 5% 감소한 2,359달러였으며, 신계약자 중 55세 이하 비중은 28.7%였으며, 65세 이하 비중은 82.7%였음.

〈표 1〉 2013년 미국 개인 장기간병(LTC)보험

| 구분    | 가입자 수(명)  | 증가율(2012~2013) | 보험료(백만 달러) | 증가율(2012~2013) |
|-------|-----------|----------------|------------|----------------|
| 신계약   | 172,178   | -26%           | 406        | -30%           |
| - 적격  | 171,659   | -26%           | 405        | -30%           |
| - 비적격 | 519       | -40%           | 0.92       | -55%           |
| 보유계약  | 4,850,000 | (1)            | 9,800      | 3%             |

주: (1) 1% 이하의 경우로 표시 안 됨.

자료: LIMRA International.

■ 과거 판매된 LTC보험상품들의 경우 부정확한 계리적 가정을 기반으로 가격이 설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손해율이 높고 경제부진으로 인한 금리하락도 겹침에 따라 이차역마진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A.M. Best(2014, 12), "Uncertainty in Long-Term Care Continues to Plague Profitability".

2) 미국에서 판매되는 장기간병보험(LTCI)은 사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장기간병서비스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에서 보상하지 않는 급부를 보장해주며, 민관협력체계 마련으로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보험상품이 있음.

- 5~10년 전에 판매된 LTC보험상품들은 보수적으로 가격을 산출하지 않았으며 계리적 가정도 부정확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부정확한 LTC발생률 외에 언더라이팅도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실제 발생한 자발적 해약률과 사망률은 기대치보다 많이 낮아 손해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편 저금리 환경 지속은 LTC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음.
    - LTC보험회사들의 투자수익률은 2007~2009년 경제침체로 인해 판매 시 예정이율보다 낮아 재투자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불일치시키는 등 역마진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보험요율 인상과 준비금 증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충분한 가격조정이 어려울뿐더러 가격 인상은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 LTC보험회사들은 기존 보험상품의 가격 또는 보상급부를 조정하거나 연금 등 다른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일정 상황 하에서 LTC급부로 전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옵션을 제공하는 등 충격완화조치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LTC보험은 충분한 수익을 올리기에는 가격 인상이 충분치 못하며, 이는 기본적인 기초가정이 판매 시점에 정해지고 보험기간이 초장기인 LTC보험 속성에 기인함.
    - LTC보험 가격 인상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상품 변경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 문제, 사업비 증가, 한계손해를 증가, 고객 불만족과 역선택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 가장 큰 LTC보험회사인 Genworth Financial의 경우 2014년 3/4분기 LTC보험의 준비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운영손실이 3억 6천 1백만 달러가 발생했다고 보고함.
    - 2014년 12월 말 Unum사 또한 약 4~5억 달러의 준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LTC보험회사들도 유사한 준비금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가정에 기초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자와 신규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극단적으로 높은 가격수준이 되고 있음.
    - LTC시장에서 기존 LTC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치는 평균 25%이며, 종신보장계약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짐.
- 과거 LTC보유계약의 경험손실과 고령화 진행에 따른 장기간병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민영보험 시장 유지의 필요성 등으로 미국의 주보험정책당국은 LTC보험 가격 조정에 대해 수용적임.
- 그러나 대부분 주보험감독당국은 가격조정 수준과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일부 주의 경우 오히려 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충분한 수준의 수익보전에는 한계가 있음.

- 미국 계리사학회지인 Contingencies의 분석에 따르면 LTC보험의 잘못된 계리적 가정에 의한 영향은 예상보다 심각하여 주정책당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LTC보험 가격 인상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것
  - 보험계약자와의 소통을 통해 옵션과 보험가격인상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력 증진 강화
  - 정기적인 LTC보험의 운영 현황 검토를 통해 가격 인상 필요성 검증
  - 가격 인상 시 보험회사의 장래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 LTC보험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가격인상 허용

■ LTC보험은 보험상품들 중에서도 가장 장기로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해 리스크가 가장 큰 보험상품인 만큼 상품설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지속적인 요율 인상과 준비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언더라이팅 실패와 부정확한 계리적 가정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LTC보험상품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A.M. Best, Contingencies 등)